

한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 The Way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

김종훈(한미파슨스(주) 대표)*

1. 서 언

IMF 외환 위기 이후 건설업계는 인원 조정, 차입금의 축소, 금융 비용 절감 등의 구조조정 노력을 통하여 생존을 위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오고 있다. 그러나 건설 경기 부진에 따른 대형 건설업체들의 잇단 워크아웃(Work-Out) 기업 지정이나 부도, 전반적인 수주 부진, 그로 인한 과당 경쟁 및 수익성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함으로 인해 건설업체들의 경영 상태는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경영 규모나 기업 활동의 당해년도 성과가 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미래의 기업 경쟁력이나 수익 창출 능력을 예측하기 위한 척도라 할 수 있는 '성장성 지표'마저 건설산업의 경우 대부분이 마이너스를 기록함으로써 이러한 침체 국면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러한 상황이 일시적인 경기 침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과거 수십 년 동안 양적 성장에만 치중해 온 나머지 외부 환경의 변화에는 너무도 안이한 자세로 대응해 온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IMF와 같은 위기 상황을 통하여 수면위로 부상한 것이라는 점이다. 향후 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적자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시장 질서가 정착되고, 선진 외국의 건설 관련 업체들이 막대한 자금력과 기술력, 그리고 건설관리 기술 등을 배경으로 국내 시장에 대한 진출을 가속화할 경우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Paradigm)에 적응치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경영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 근원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도 입

지난 2000년 11월, 미국과 일본의 주요 건설 관련 연구소의 전문가들이 참가한 "건설산업의 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 전망과 대응 전략"에 관한 국제 세미나가 있었다. 당시 미국 측 대표로

참가한 미국건설산업연구소 부소장 Louise Prudhomme씨는 현재 미국 건설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 과제를 다음의 12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발표한 바가 있다.

- 최저가가 반드시 최선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발주자와 계약자간의 상호 협력과 공동의 목적을 지향하는 새로운 프로젝트 계약 전략 수립 및 대안의 모색
- 건설산업 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 자재조달망통합시스템(Supply chain integration) 개발을 통한 조달 및 재고 관리 비용 절감
-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한 국제화 및 세계화 과정에서의 기회 비용 절감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상의 프로젝트팀 구성 및 활용
- 점점 단축되어가는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
- 다양한 노동력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 수립
- 엔지니어 및 기능 인력의 생산성 측정을 위한 표준 도구 개발
- 근로자 안전의 개선
- 건설 신소재 개발 및 활용
- 건설 자동화를 감안한 설계
- 프로젝트 프로세스의 통합 자동화에 의한 정보 공유

한국과 미국의 건설산업 경쟁력을 비교할 때, 하드웨어 측면은 어느 정도 그 간격을 좁혀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에 선행하는 기획력, 설계,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도구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분야는 상대적으로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미나에서 발표된 미국 건설산업의 현안 과제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구체적인 기술인 하드웨어의 개발보다는 그것을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나 프로세스 관리 기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는 하드웨어의 개발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보조하고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면, 통신 기술과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부터 촉발된 정보화 시대에서는 이러한 고착화된 유형에 대한

* jhkim@hanmiparsons.com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으며, 건설산업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이러한 움직임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간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궁극적인 아웃풋(Out-Put)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든지, 역으로 소프트웨어를 통한 새로운 하드웨어의 창출과 같은 상호 역할의 전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보통신의 발달이 가장 앞서 있는 미국에서 이미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곧 세계적인 경쟁력으로 표출되었음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다. 따라서 한국 건설산업의 경우, 향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이러한 핵심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아울러 아직도 선진 외국 업체에 비해 비교 열위에 놓여 있는 하드웨어에 대한 연구와 개발 노력 또한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한국 건설산업의 경쟁력 저하 요인

3.1 설계 및 엔지니어링 능력 부족

설계 및 엔지니어링은 건설의 기초이자 경쟁력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 능력은 국제적인 잣대를 놓고 볼 때 그 정도가 심각함을 넘어 황폐감을 느낄 정도로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첫째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즉 불합리한 법 체계 및 잘못된 관행의 결과이고, 두 번째로는 업계 자체적인 개선 노력 및 의지의 부족, 세 번째는 IMF 경제 위기의 후유증으로 인한 근본적인 일감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의 특수 상황에 의하여 관련 업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조짐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처럼 설계나 엔지니어링 분야가 홀대받고 그 중요성이 무시되는 경우는 좀처럼 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관련 업계들의 노력은 극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분위기에 휩쓸려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반도체 분야의 경우 설계가 확정되면 생산 원가, 공정(Process), 생산 방법, 품질 등 제품의 거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임에 비해 건설업의 경우는 어떠한가? 확보된 기술력을 통하여 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결정하기보다는 복잡한 문제들은 시공 단계로 떠넘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할 뿐만 아니라, 설계 참여자들의 자질이나 Professionalism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라도 건설의 핵심 소프트웨어인 설계와 엔지니어링이 바로 서야 우리 건설산업이 바로 선다는 인식을 가다듬어야 한다.

3.2 관련 법 제도의 생산성 및 효율성 부족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건설산업 관련 법 제도의 비효율성과 국제적인 기준에 미달하는 각종 제도, 규제 및 입찰 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1960, 70년대의 개발 단계에서는 정부 주도의 규제나 통제의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2000년대 들어서 조차 조직의 효율성과 기술력에서 민간 기업에 현저히 뒤처지는 정부 관료나 조직이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건설산업을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실로 엄청난 자가당착이요 모순임에 틀림없다.

건설 관련 입법 내용이나 과정 또한 그 문제가 심각하다. 내용면에 있어서는 상당수의 법이 이웃 나라의 법을 어설픈게 모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실이나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치 못하고 있고, 입법 과정에서는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되어 업역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각종 이익집단들이 제각기 내는 목소리를 모두 수용하다보니 법 자체의 공평성이 결여되어 업역 간의 분쟁이나 불신의 골만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상황에 의해 급조된 각종 법규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임시 처방식 개정을 거듭함으로써 관련 법과의 호환성이나 일관성은 온데 간데 없고 급기야는 건설 관련 법규 중 상당 부분은 지켜질 수도 없고 지키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상황까지 빚어지게 된 것이다. 건설 생산 과정을 지배하는 시스템 중 가장 상위의 체계가 '법과 제도'라고 할 때, 잘못된 법과 제도하에서는 잘못된 생산품과 비효율적인 결과가 나타남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3.3 시스템 및 시스템에 대한 의식 부족

건설산업의 특징은 다변성이다. 즉, 건설산업의 구성 요소가 매번, 많이 변한다는 뜻이다. 각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주체들, 즉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참여 인력, 건설 생산의 위치 등 변하지 않는 부분이 없다. 이러한 특성은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훨씬 더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에는 사실상 생산 활동의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이 존재치 않는다는 말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설업체들이 외국에서는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선진 외국의 설계, 사업관리, 시공 및 감리 등 건설사업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예를 들어, 건설생산시스템의 경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역할 분담 및 협조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모호한 역할 분담은 하청 생산 구조의 이중화를 초래하여 전문건설업자의 기술력 향상이나 전문화를 저해하고 수익 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시장 경쟁 원리를 무시한 지역제한입찰제도나 건설업체의 단순 외형에 기초한 시공능력공시금액제도 등은 업체간 자율 경쟁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공동도급제 역시 대기업들의 소규모 공사에 대한 시장 잠식을 조장하거나 중소 건설업체가 대형 공사를 수주하는 편법으로 이용되는 등의 각종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입찰 평가 및 계약 시스템 또한 마찬가지이다. 입찰 절차가 지나치게 형식에 치우쳐 있고, 설계시공 일괄입찰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나치게 투명성 측면이 강조된 나머지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 등에 대한 평가 요소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주로 가격에 의하여 낙찰자가 결정됨으로써, 업체간의 무모한 경쟁에 의한 덤핑 입찰이나 담합, 무자격 부실 건설업체 난립 등의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후 낙찰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각종 계약 약관들의 모호함이나 부당성으로 인해 불공정 거래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도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이 안고 있는 커다란 병폐 중의 하나로 건설업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예로는, 품질시스템체계인 ISO Standard는 매우 효과적인 시스템 도구(Tool)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껏 'PQ시의 가점'이나 '장식용 Certificate'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최근 들어서는 가점 기준마저 없어져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망각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3.4 체계적인 건설정보시스템의 부족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수요자들은 우수 건설업체와 부실 건설업체를 판별할 수 있는 정보를, 그리고 건설업체들은 민간 및 공공 분야의 건설 수요에 대한 정보를 상호간에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나, 2000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건설 발주 물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민간 분야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능이 부족한 상황이다. 수요자와 공급자 상호간의 정보 부족은 건설 시장 구조를 왜곡시키고, 공정한 룰(Rule)의 확립을 저해하며, 수주 예측의 어려움으로 인한 건설업체간의 과당 경쟁 및 출혈 수준의 병폐를 야기함은 물론, 품질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소비자 및 생산자 모두가 피해를 입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건설 자재에 대한 정보 시스템 또한 마찬가지이다. 건설 자재의 경우 생산 시설의 마련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건설 경기의 불안정에 따른 투자 위험이 커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변동이 심하다. 자재의 수급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건설 공사 생산 방식의 특수성에 대처할 수 있는 유통 구조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 상황은 품질이나 가격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만 유지되고 있을 뿐 중장기적인 자재 수급 상황의 예측 기능이나 개별 자재의 품질 향상 및 품질 인증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5 고질적인 업역 이기주의 및 사업 참여자간의 유대감 결여

건설산업에 있어서는 기능적, 기술적인 요소에 못지 않게 사업

참여자간의 의식구조 또한 성과물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업역 이기주의는 건설사업 단계별 정보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왜곡시켜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어렵게 하고, 설계단계에서의 시공성 향상이나 VE 기법 등의 적용을 통한 원가 절감 기회 등을 저해함으로써, 결국은 공사 기간의 장기화나 공사비의 상승을 유발하여 건설 수요를 억제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현장관리에 있어서도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간의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업무 영역이 엄격히 구분되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공사를 수행하고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무적이고 불공정한 계약 관행으로 인해 상하 관계 혹은 지시와 복종 관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상호간의 신뢰성 부족으로 눈가림식, 형식적 공사 관리가 횡행하는 실정이다.

3.6 기술 개발 노력 및 투자 미흡

건설 기술은 신공법, 신장비, 신자재 등의 '생산 기술'과 프로세스 개선, 생산성 향상 기법, 통합 관리 기법 등의 '관리 기술'로 대별될 수 있고, 생산 기술과 관리 기술이 상호 접목되고 통합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져야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산·학·연·관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연구 개발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그 성과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민간 분야의 경우 가격 경쟁이 우선시되어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보다는 단기 이익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고, 투자 효과나 이익 환수를 보다 중시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기술 개발을 등한시하고 있으며, 연구 개발에 의한 독자 기술 확보보다는 손쉬운 해외 기술의 도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 분야에 있어서도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계획에 의한 기술 개발 노력이나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매우 소극적인 상태이며, 건설 기술 정보의 종합 유통 체계 미비로 해외 건설 경험 및 도입된 기술의 보급이나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커리큘럼이나 각종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되는 내용들도 실제 건설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실용적인 과제라기보다는 이론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어 연구의 성과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 인력과 현업에 종사하는 인력간의 상호 교류 혹은 기술자 양성을 위한 학교나 연구기관의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도 찾기 힘든 실정이다.

전술한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한국 건설산업은 설계 및 엔지니어링 능력, 체계적인 공사 관리 기법, 공사 기간, 공사 원가 등 건설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거

의 상실한 상태이다. 특히 건설 공사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재료라고 할 수 있는 콘크리트 분야나 건설사업관리 방식 등에 있어서는 동남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도 뒤쳐져 있다는 사실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동남아 각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CM 제도를 도입하여 건설사업에 적용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수년 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고강도의 콘크리트를 개발하기 위한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세워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4.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4.1 관련 법규 제도 및 건설 생산 구조의 혁신

시장 중심으로 재편된 국제 질서는 과거 정부의 보호 및 육성 정책 하에 안주해 온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요구에 순응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는 각각의 역할 분담을 통하여 건설산업에 잔재해 있는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기득권 세력들이 향유하던 각종 특혜 규정이나 조치들을 철폐함으로써 과거 고도 성장 과정에서 전도된 가치 규범들을 바로 세워야만 한다.

먼저 정부는, 건설산업을 매출액의 규모와 고용 인원수 등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걸맞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산업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새로운 틀로 재구성하여야 한다. 건설산업이 갖는 특성을 고려할 때 어느 한 부분의 제도 보완이나 개혁, 또는 기존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개선안을 찾는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며, 미시적·단기적인 효과는 볼 수 있을지는 모르나 기득권 세력의 반발, 기존 제도에 의한 각종 진입 장벽, 업역 이기주의, 정부 관련 부처간의 이해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 상황에서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내적 요인과 외적인 환경에 대한 치밀하고도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밝혀내고 포괄적이고도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만 한다.

또한, 시장 자율 기능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어야 할 건설 서비스 기능이 경기 부양이나 억제책 또는 사회 보장 정책 등의 정책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며, 업체들의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장려할 수 있도록 공사의 규모나 업역에 상관없이 모든 입찰 및 계약 제도를 기술 경쟁 위주로 과감히 정비하고, 특정 이해집단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마다 법과 제도를 고치는 일은 다시는 반복하여서는 안 된다. 과거 우리나라의 낙찰자 선정 방식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가를 되돌아보면 오늘날의 건설산업이 왜 이렇게 낙후되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다.

건설산업 참여 주체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앞서 밝힌 바와 마

찬가지로 현재의 상황은 경기 순환에 의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 수십 년 동안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들이 수면위로 드러난 것이다. 경기 침체 때마다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책만을 요구하는 '천수답 산업'에서 과감히 벗어나야만 한다. 업계 자체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전제되지 않은 부양책은 부실을 확대 재생산할 뿐이며, 중국에는 더 큰 문제점을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업역 간의 다툼이나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 다가는 단지 시차만 있을 뿐 모두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 의식을 가지고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건설 생산 활동을 유기적인 하나의 시스템으로 인식하여 건설 생산 구조를 개편하고, 건설 생산 주체뿐만 아니라 수요자들의 의식 전환을 통하여 건설사업에 투입되는 제반 요소들 간에 공정한 경쟁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룰을 정립하여 미래의 건설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4.2 기술 경쟁력 강화

건설업의 기술 개발은 기초 기술에서부터 응용 기술에 이르기 까지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투자 규모가 크고, 장시간이 소요됨으로 인해 연구 개발의 성과가 곧바로 기업의 이익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Global)화 된 경쟁 체제 하에서 선진 건설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경쟁력만이 최선의 방책을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공동 연구 체계가 많이 거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볼 때, 누구보다도 정부와 민간 기업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부는 건설 분야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여야 한다. 민간 기업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기술 개발을 선도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생산 방식을 도외시한 채 이론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는 학교, 연구기관과 기업간의 괴리를 좁혀 나감과 동시에, 원청업체의 자금 지원 등을 통한 원하청 업체간의 공동 연구 또한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은 시공에 관한 기술 뿐 아니라, 설계, 사업관리 관련 기술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자체 개발 못지 않게 적극적으로 선진 기술을 도입하는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 일본 건설산업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4.3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신뢰 회복

건설산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수주산업으로서 주문 생산

형태를 취한다는 점이다. 수요자는 전적으로 공급자에 대한 신뢰성에 의존하여 공사를 도급하고 수급자는 경쟁을 통하여 수주를 하며, 계약시까지는 일방적으로 발주자의 의지에 의해 좌우되는 생산 과정이 계약 체결 후에는 수급자에 의하여 품질이 결정된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발주자와 수급자간의 신뢰 관계가 결여된 상태에서는 생산 과정에서의 공정한 물이란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발주자가 안심하고 수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나 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고질적인 발주자 우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표준화된 계약 약관의 정립 또한 절실하다 할 것이다.

또한 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도 현재의 수직적 하도급 구조에서는 경영과 기술을 막론하고 원도급자에 대한 하도급자의 연속화를 피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자간에 팽배해 있는 갈등 구조의 해소 또한 곤란할 것으로 보이므로 원청업체는 건설 생산에 필요한 제반 요소들을 총괄 관리하고, 실제 시공은 하청 업체들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양자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한 수평적 하도급 구조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4.4 건설산업의 정보화

세계화된 건설 시장에서의 활동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관리 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시장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선진 외국에서는 건설정보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들을 서두르고 있다.

건설사업의 기획 단계로부터 유지 보수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건설정보통합체계 구축은 필연적으로 각 기업의 업무 처리 방법 및 절차를 표준화시키게 되고, 개별 인력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존하던 기존의 생산 방식에서 조직과 시스템에 의한 생산 방식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개인 혹은 사업장간의 정보 공유 및 기술력 보완 효과를 통한 시너지의 유발은 물론,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커다란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E-Commerce를 활성화하여 건설산업 주체들 간의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유하거나 교류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물론, 나아가서는 불필요한 업무를 경감하고, 조직을 슬림화하며, 신속한 의사 결정에 의한 수요자의 요구를 수용함과 동시에 공사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공사 관리 및 기업 관행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4.5 기업 윤리 확보 및 투명 경영의 실천을 통한 신뢰감 회복

건설산업은 과거 1970년대부터 해외건설 시장 진출을 통하여 국민 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도, 질적인 측면은

외면한 채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함으로써 지금까지 건설산업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특유의 비정상적이고도 불건전한 풍토나 관행을 극복하지 못하고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지탄 받는 업종으로 전락해 있다.

이러한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에서 유지 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건설사업의 전 단계에 걸쳐 관련 제도의 미비나 불합리한 제도 운용에 기인하는 각종 문제점들을 해소함은 물론,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분식회계를 통한 손익의 조작, 업체간의 담합, 뇌물 및 금품 수수, 하도급 비리, 비자금 조성 등의 관행들을 근절시키기 위한 건설업계 및 관계자들의 자정 노력과 윤리 의식의 재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1999년 2월부터 발효된 「OECD의 뇌물방지협약(반부패 라운드)」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국제 경쟁 체제하에서는 기업의 윤리가 곧 경쟁력의 척도가 되며, 투명 경영을 통한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감 회복 없이는 건설산업의 미래도 있을 수 없다는 업계의 확고한 인식이 필요하다.

4.6 사고의 전환을 통한 현실의 재인식

흔히 일반인들의 사고 속에는 실제의 사실과 달리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정형화되어 고정 관념으로 자리잡고 있는 내용들이 많다.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오도된 고정 관념들은 '문제에 대한 재인식 노력'이나 '관련 기술 개발 의지'를 가로막아 결과적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실례로서, '공기의 단축이 곧 부실공사로 인식'되거나, '고층 건축물의 계획시 철골조로 설계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공사 기간의 단축'은 건설 분야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효율적인 공사 관리 기법의 적용', 'Design Review를 통한 Constructability 확보', '고강도 콘크리트의 개발' 및 '외국의 초고층 건물에 적용되어 그 성과가 입증되고 있는 2 day-cycle 공법의 적용' 등을 통하여 충분한 기술적 해결이나 입증이 가능하다.

초고층 건물에서의 무조건적인 철골조의 채택 또한 RC조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이나 RC조가 지닌 많은 장점들을 간과함에 따른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철골조와 비교시 RC조의 장점으로는 우선 플랫폼 구조의 경우 자유로운 평면 구성이 가능하며 철골조에 비해 층고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하층 간의 소음 차단 성능 면에서도 철골조에 비해 훨씬 뛰어나다. 또한, 철골조의 경우 제작을 위한 최소한의 Lead-Time을 필요로 하며, 좁은 바닥 면적을 가진 건물의 경우 RC조가 철골조와 비교했을 때 횡력에 대한 저항성도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설계적, 구조적, 재료적 장점 외에 시공 면에서도 건

설 비용이 저렴하고 현장 제작이 자유롭다는 등의 장점도 다수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산·학 공동의 체계적인 연구 개발 노력을 통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고 개선하여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4.7 건설업종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기업 평가 방식의 개선

일반적으로 건설산업은 부채 비율이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자기자본 비율이 낮아 경영의 안정성 면에서 제조업에 비해 낙후되어 있고, 투하된 자본에 대한 회전을 및 수익률이 낮은 대표적인 업종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은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민감하고 공공의 복리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종의 공익산업적인 측면이 강하여 정부의 정책에 따라 사업의 방향이나 기업의 경영 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조정을 요한다는 측면에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특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건설산업은 기타 제조업과는 달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기 선행 산업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자산 요소 또한 고정 자산이나 생산 시설 외에도 인력, 기술력, 수주 영업 능력 등과 같은 무형의 형태로 존재하므로 건설업체에 대한 기업 평가는 일반적인 회계의 잣대를 적용하기에는 다소간의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건설업은 '생산 능력에 대한 신뢰도를 바탕으로 수익 구조가 결정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재무제표만을 중시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에 대한 신용도 평가 방식에서 탈피하여 프로젝트의 관리 및 수행 능력, 기술력, 자금 동원력, 신용도 등 '비재무적인 무형의 자산'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5. 결 언

당면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위기는 국가와 건설업계 모두가 경쟁 심화, 소비자 주도의 시장, 시장 개방 등으로 대표되는 시대의 변화와 요구를 미리 읽지 못하고 이에 대비한 기업 환경의 정비나 체질 강화 노력을 게을리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믿는다. 탈(脫)규제와 탈지역화로 대변되는 세계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 외국의 건설업체들도 세계 각처로 그 활동 무대를 넓혀 나가고 있다. 이들은 우리보다 앞선 기술력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술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사업관리 능력에 크게 앞서 있는 실정이다. 과거와 같이 국가가 강력한 법규로서 이들을 규제함으로써 국내 업체들을 보호할 수도 없는 현실에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씩 준비해야 할 것은 이들의 선진 경영 관리 기법을 도입하고 나아가 그것을 국내에 접목시키는 것일 것이다. 특히 요즘과 같이 건설산업이 침체되어 있는 시점에서 향후 경쟁력을 확보하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술 개발 및 신기술 도입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그러한 기술을 통합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현재 도입 초기 단계인 CM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과거 주먹구구식 건설 경영 관행에서 탈피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21세기에 전개될 엄정하고 투명한 시장 경쟁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의 위기를 경기 순환에 의한 불황의 주기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위기로 인식하고, 오로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술력과 시스템 개발, 그리고 경영 혁신을 통한 기업 재구조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